

인구 고령화와 중국의 사회보장 Population Aging and Social Security in China

김 병 철*

중국인민대학교 사회보장학과

Byung Cheol Kim

Department of Social Security

Renmin University of China

(초록)

중국은 세계에서 인구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 중의 하나이다. 중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은 2000년에 7%에서 2018년에 11.9%까지 증가했다. 중국은 2023년에 65세 노인 인구의 비율이 14%에 달해 고령사회 그리고 2035년에는 20%에 달해 초(超)고령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인구의 급증으로 인해 근래 의료·요양 문제가 중국 사회에서 핵심 사안으로 떠오르면서 사회보장 영역에 많은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들의 문제에 대해 중국 정부는 장기요양보험을 필요로 하는 계층의 기본 생활권을 보장하고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수립하기 위해 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본고는 중국에서 요양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사전적 검토이며, 노인복지의 강화 수단이자 사회보장의 한 유형으로써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중요성 인식에 관한 일반론적 고찰이다.

주제어 : 인구 고령화, 사회보장, 요양서비스 체계, 장기요양보험, 중국의 고령화

(Abstract)

China is one of the fastest-growing countries of population aging in the world. The portion of China's elderly population aged over 65 increased from 7% in 2000 to 11.9% in 2018. China is expected to enter into the

* 교신저자: Byung-Cheol Kim (김병철),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Security, School of Labour and Human Resources, Renmin University of China, No. 59 Zhongguancun Street, Haidian District, Beijing, Beijing, 100872, P. R. China (e-mail: jinbingche@ruc.edu.cn)

aged society with the portion of the 65-year-old population reaching 14% in 2023 and into the super-aged society by reaching 20% in 2035. Due to the rapid increase in the aged population, the healthcare problems have recently emerged as a major issue in the Chinese society, which gives many challenges to the field of social security. To cope with the problems faced in aging population, the Chinese government has conducted a pilot project of long-term care insurance to ensure the basic rights of those who are in need of long-term care insurance and to establish a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As a preliminary review for the establishment of nursing service system in China, this paper shows a general view on being aware of the importance of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which is a type of social security and the strengthening of social services for the older adults.

Key words: Population aging, Social security, Care service system, Long-term Care Insurance, Aging of China

I. 서 론

중국은 근래 인구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18년 말 현재 중국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11.9%에 달해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를 넘어 고령사회(aged society)로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인구 고령화의 심화로 인해 사회·경제적 부담이 늘어나고 있으며, 사회보장 영역에 여러 가지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 돌봄 문제는 단순히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의 구조적 변화 때문이기에 정부 차원에서 사회보장제도 개선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16년 6월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해 장기요양보험을 필요로 하는 계층의 기본 생활권을 보장하고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II. 인구 고령화 현상

최근 중국에서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1980년부터 ‘한 자녀 정책’이라는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 실시 이후 출생 인구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반면, 노인인구는 급증하고 있다(Nie, 2016). 중국에서는 노인인구가 해마다 거의 1,000만 명씩 늘어나고 있다. 인구 고령화는 한 나라의 연령별 인구 구성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의 변화를 나타낸다. ‘노인’이라는 용어 기준이 문화권마다 다를 수 있지만, 국제연합(UN)은 65세 이상 인구를 노인으로 정의하기에 전체 인구를 65세 이상 노인인구로 나눈 연령 계수가 인구 고령화를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을 고령화 사회(ageing society), 14% 이상을 고령사회(aged society), 20% 이상을 초(超)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라고 한다(Park, Yang, Ha, & Lee, 2014). 인구 고령화의 개념을 이와 같이 규정한다면, 중국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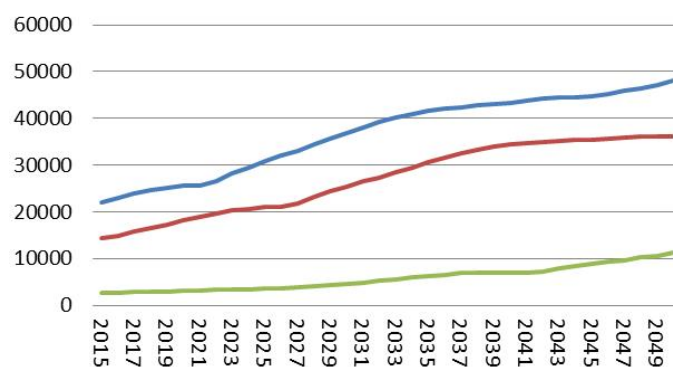
2000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셈이다.

중국은 아직도 노인을 정의할 때 60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2000년에서 2018년 사이에 60세 이상의 인구가 1억 2,600만 명에서 2억 4900만 명으로 늘었다. 중국의 최고국가 행정기관인 국무원(國務院)이 2017년 발표한 ‘국가 인구발전 계획 2016-2030년’에 따르면, 중국의 전체 인구는 2030년에 14.5억 명으로 최고치를 달한 후 감소세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때까지 60세 이상 노인인구는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이면서 2030년에는 전체 인구의 2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러한 추세에 따르면, 2016년에 16%에 불과했던 60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2030년에 25%에 달해 ‘초(超)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했다(People’s Daily, 2019).

한편 65세를 기준으로 할 때 2018년 말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11.9%를 차지했다. 현재의 추세로 볼 때 중국의 인구 고령화는 2050년까지 급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

다. 중국노년보건협회(Chinese Aging Well Association)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에 중국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14%에 달해 ‘고령화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30년에 약 17.3%, 2040년에 약 23.1%, 그리고 2050년에는 약 24.5%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뿐만 아니라 80세 이상 고령 인구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15년에 80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율은 1.85%였지만, 2060년에 12-13%, 2100년에 16-18%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People’s Daily, 2019). 중국의 노인인구 증가 추이를 ‘중국 인구현황 발전추세 예측(2011-2100)’에 근거로 60세, 65세 및 80세를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은 <Figure 1>에 소개되어 있다.

중국의 급속한 인구 고령화 현상은 평균수명(기대수명)의 연장과 출산율의 저하가 지속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인구 고령화 속도는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고령층의 증가와 출산율의 저하에 따른 비(非)고령인구 수의 감소로 인한 복합요



Note. The upper line (blue line) in the graph stands for 60 years or over, the middle line (red line) 65 years or over, and the bottom line (green line) 80 years or over.

<Figure 1> Trends of aged population in China (2015-2050) [Unit: 10,000 persons]

<Table 1> Life expectancy for Chinese people (Unit: year)

Year	Total	Male	Female	Gender Difference
1981	67.77	66.28	69.27	-2.99
1990	68.55	66.84	70.47	-3.63
2000	71.40	69.63	73.33	-3.70
2005	72.95	70.83	75.25	-4.42
2010	74.83	72.38	77.37	-4.99
2015	76.34	73.64	79.43	-5.79

Source: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http://www.stats.gov.cn/>)

인에서 기인된다. 먼저 최근 중국의 기대수명은 의학의 발달, 의식주 등 기본 욕구의 충족 등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연장되고 있다. 전체 인구 중 1%를 표본으로 계산한 바에 따르면, 2015년도의 기대수명은 76.34세로 2010년에 비해 1.51세가 높아졌다. 그 중 남성인구의 기대수명은 73.64세로 2010년보다 1.26세가 높아졌고, 여성의 기대수명은 79.43세로 2010년보다 2.06세가 높아졌다. 지난 2010년에서 2015년 사이에 남녀 간 평균 예상 수명 격차는 4.99세에서 2015년에 5.79세로 늘어났다 (China Daily, 2017). 중국 국가통계국(National Bureau of Statistics)의 자료에 의거하여 남녀의 기대수명 및 그 차이를 정리한 내용은 <Table 1>에 소개되어 있다.

한편 2019년 1월에 발표한 중국 국가통계국 자료를 보면, 2018년에 중국 신생아 수는 1,523만 명으로 2017년보다 200만 명이 줄었다. 신생아 출생률은 10.94‰(Per mille: 인구 1,000명당 출생 수)로 2017년의 12.43‰보다 하락했고, 1949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국 정부가 ‘두 자녀 정책’을 2016년 1월부터 시행한 이래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신생아

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중국의 인구 고령화 과정은 몇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째, 거대한 노인인구의 규모이다. 중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인구 대국일 뿐만 아니라 고령자 대국으로 부각되고 있다. 2018년 말 현재 중국 60세 이상 노인인구는 약 2억 4,600만 명으로 전 세계 노인인구의 약 22%, 아시아 노인인구의 약 40%를 차지할 정도이며(Sohu.com, 2018), 중국의 60세 이상 노인인구 수는 프랑스, 영국, 독일 세 나라의 전체인구 수를 합친 것과 비슷하다(Tian, 2013).

둘째,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 선진국에서의 인구 고령화는 40-100년에 걸쳐 진행되었다면, 중국은 불과 20~30여년 만에 급속한 인구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의 진입에 소요된 기간을 살펴보면, 한국의 18년보다는 더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영국의 47년, 독일의 40년, 미국의 73년보다 훨씬 짧은, 또 일본의 24년에 버금가는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Kim, 2014).

셋째, 노인인구의 절반 정도가 혼자서 살거

나 노부부끼리만 생활하고 있는 현상(空巢, empty nest)이 심해진다는 점이다. 대도시의 경우 그 비율은 무려 70%에 육박할 정도로 심각하다(Xiang, 2016). 이와 같이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은 산아제한 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산아제한 정책(한 자녀 정책)이 강제적으로 시행된 이후 출생한 제1대 외동 자녀들은 대다수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고, 곧 40대의 중년기에 접어들게 된 반면, 그들의 부모들은 1950-60년대 출생자로 대다수가 60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넷째,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노인부양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선진국들은 일반적으로 현대화 이후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기에 “부유해진 후에 늙거나” 혹은 “부유해지면서 늙는” 경우에 속한 반면, 중국의 인구 고령화는 “부유해지기 전에 늙어버린” 특성을 보이고 있다(Tian, 2013). 예를 들면, 선진국들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때 1인당 GDP는 통상 5,000-10,000달러 수준이었지만, 중국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 2000년도 당시 1인당 GDP가 856달러에 불과했다(Sina, 2018). 이로 인해 중국 정부가 그만큼 인구 고령화에 대응할 난이도가 높아졌다.

III. 인구 고령화의 사회·경제적 영향

인구 고령화의 심화로 인해 사회·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고령화는 그 자체로서도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저축 하락, 개인의 노후대비 저축증가, 소비위축, 투

자위축, 노인층 노동공급 등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게다가 인구 고령화의 영향은 연금·의료보험 등 사회복지 제도, 자본시장 제도, 노동시장 제도, 고용 제도, 주택 제도 등의 제도적 요인과 결부되어 세대 간 분배의 형평성 문제, 재정수지의 악화 등에도 파급이 커지고 있다(Kim, 2017). 특히 국가나 사회가 부양해야 할 고령층은 만성 질병으로 오랜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의료보험 등 국가에서 책임져야 하는 의료 수요가 크게 늘어난다(Zheng, 2008).

무엇보다도 노인인구가 늘어나면 연금·의료보험 등 사회복지비가 크게 증가한다. 최근 중 중국의 주요 매체[예: 신화왕(新華網, xinhuanet.com), 차이징왕(財經網, caijing.com.cn)]는 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둔 중국이 벌써 연금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공적 연금 체계는 지역과 직업 등의 차이를 근거해 크게 두 가지 제도로 구분된다. 하나는 직장 가입자 연금(城镇职工基本养老保险, 도시근로자 기본 양로보험) 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 가입자 연금(城乡居民基本养老保险, 도시·농촌주민 기본 양로보험)이다. 그 중 직장 가입자 연금은 사회통합기금(社会统筹基金, Social pooling account)과 개인계좌(个人账户, Individual account)가 결합된 형태로, 1990년대 중반에 도입된 이래 퇴직자에게 연금을 지급해왔다. 그렇지만 퇴직 연금이 눈덩이처럼 늘어나 기금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자 중국 정부는 국가 보조금과 직장 가입자의 개인 소유에 속하는 개인계좌 적립금을 인출해 부족한 연금을 메우고 있다(Li, 2015).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연금 재정이 바닥날 위기에 처하자 중국 정부는 국가 보조금을 투입하고 있다. 2016년 말 기준 직장 가입자 연금 기금 수입은 3조 5,100억 위안(한화로 약 593조원)으로 전년도 대비 19.5% 증가했고, 기금 지출은 3조 1,900억 위안(약 539조원)으로 전년도 대비 23.4% 증가했으며, 그 중 중국 정부가 4,291억 위안(한화로 약 72조원)을 보조했다. 기금 적립금은 3조 8,600억 위안(한화로 약 653조원)으로 17개월분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직할시와 성(省), 자치구에서는 기금 소득보다 지출이 더 많은 현상이 보편화되고 있어 국가 보조금을 투입해야 운영될 수 있다. 중국 매체 신징바오(新京報)는 연금 재정이 바닥나 보유한 적립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연금이 1년 지급분에도 미치지 못하는 직할시와 성, 자치구는 모두 13개 지역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중국 헤이룽장(黑龍江)성의 경우, 1명의 연금 수급자를 1.3명의 가입자가 지탱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었다(Xinjingbao, 2018).

더욱 더 우려스러운 점은 연금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사회과학원 세계 사회 보장연구센터(世界社會保障中心)의 주임(鄭秉文, Zheng Bingwen)이 집필한 ‘중국 연금 발전보고 2016’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중국 기업근로자 기본 연금기금 적립금은 총 3조 5,345억 위안(한화로 약 598조원)인데, 연금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끌어다 쓴 개인계좌 적립금은 그보다 1조 1,799억 위안(한화로 약 199조원) 많은 4조 7,144억 위안(한화로 약 798조원)에 달했다(Zheng, 2016). 무려 1조 1,799억 위안이 연금 적자인 셈이다. 중국 재

정부 산하 싱크탱크인 재정연구원 류상시(劉尙希) 국장은 ‘2020년 이후부터 연금 적자가 급증할 것으로 보여 시급히 해결책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재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연금 적자의 규모가 5년 내에 5조-10조 위안에 이르고, 10년 이내에 20조-30조 위안을 넘어 40조 위안에 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중국에서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연금 고갈로 인한 정부의 부채 증가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현재 상태가 계속될 경우 연금제도는 지탱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해 인구 고령화 위기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의료비도 당연히 상승한다. 사망률의 저하와 평균 수명의 증가에 힘입은 인구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급증하면서 노인 의료비도 급격히 불어나기 때문이다. 중국 노인의 경우에는 1인당 평균 의료비 지출은 경제활동 인구보다 3-5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Liu, 2013). 인구 고령화의 심화에 따른 노인인구 의료 수요의 증가로 막중한 의료비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인구 고령화가 초래된 문제는 단순히 노인이나 인구 고령화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현행 사회제도와 정책체계가 사회발전의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제도 개선을 통해 인구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사회보장제도 수립과 개선, 법안 개선, 노인서비스 산업발전정책 제정, 합리적인 인구계획 제정 등의 조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요양서비스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2018년까지 중앙정부의 각 부서와 성(省)급

정부는 총 505건의 정책을 제정했다(Shang, 2019). 여기에는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64건과 각 성(자치구, 직할시 포함)급 정책 441건(23개 분류)을 포함하는데, 그 중 베이징 시는 41건으로 가장 많은 정책을 제정했다. 주요 정책 내용은 사회 요양서비스 체계 구축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1년에 중국은 ‘사회 요양서비스 체계 구축 계획(2011-2015년)’을 실시해 ‘재가 요양을 기초로 지역사회에 의탁하며 거주시설이 보충하는’ 복합적인 사회 요양서비스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가정 요양과 사회 요양이 결합된 요양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 그리고 2017년에 ‘제13차 5개년 계획’ 국가 노령사업 발전과 요양 체계 구축 계획을 제정해 ‘재가 요양을 기초로 지역사회에 의탁하며 거주시설이 보충하며 의료·요양을 결합한’ 사회 요양서비스 체계를 더욱 확실히 구축해 재가 및 지역사회 요양서비스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가정 요양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했다. 특히 베이징(北京)시는 ‘北京市 요양서비스 시설 전문 항목 계획’의 ‘9064’ 요양서비스 발전 목표에 근거해 2020년까지 ‘재가 요양이 90%, 지역사회가 6%, 거주시설이 4%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며’ 의료·요양을 결합한 다층적인 사회 요양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China.org.co, 2015).

IV. 노인장기요양보험 추진

노인인구가 급증하면서 이들의 돌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중국 사회보장 체계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으나

그 급여나 서비스 수준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자립 능력을 상실한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돌봄 정책 수립이 시급히 요구되면서 노인인구 돌봄을 가족에서 사회로 이전하는 ‘돌봄의 사회화’가 중국 내에서 중요한 현안으로 부상했다(Yu, 2017). 따라서 노인인구 돌봄에 있어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사회·국가가 책임을 다하기 위해 중국의 실정에 맞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립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고령자들의 삶의 질 개선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중국은 한국처럼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서 의료·요양에 대한 수요의 급증이 예상되며, 이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 수립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한국은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시행한 이래 11년이 지났다. 한국의 노인인구가 7%를 초과한 시기가 2000년이었는데, 그 이듬해인 2001년 8월 15일에 김대중 대통령의 경축사에서 고령화 시대에 대비 노인장기요양보장 제도의 도입을 제시했고, 노인장기요양보장 제도의 일환으로 노인간병보험도 구상하게 되었으며, 2005년부터 시범 사업을 거쳐 2008년 3월부터 7월까지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마친 후 2008년 7월부터 시행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된 이래 그동안 가족이 전담하고 있던 돌봄 책임을 사회가 함께 부담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된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 입장에서 돌봄 불안과 부양 부담 감소 등으로 새로운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게 된 것이다(Lee & Kim, 2019). 물론 재정적인 측면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부정적 영향이 전망되는 실정이

지만, 제도 자체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중국도 노인 돌봄 문제를 직면하여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예를 들면, ‘중화인민공화국 국민 경제·사회 발전 제13차 5개년 계획 가이드라인’에서는 장기요양보험제도 수립을 탐색하고 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사업 전개를 요구했다. 또 2016년 6월 27일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 사업에 관한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의견’을 발표했다. 그 주요 취지는 장기요양보험을 요하는 계층의 기본 생활권을 보장하고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의견의 발표와 함께 관련 행정, 연구 및 보험 기관들은 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제도 구성, 자금 조달, 서비스 내용에 관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드디어 2016년부터는 전국적으로 15개 도시를 대상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2019년 3월 ‘정부 업무보고’에서도 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사업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Xinhuanet, 2019). 물론 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V. 맺음말

앞으로 인구 고령화의 심화, 출산율의 감소와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에 따른 노동 생산성 저하로 인해 중국 경제성장은 둔화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로 재정 수입은 감소하는 반면 노인인구를 위한 사회복지비가 급증할 것이고, 이는 경제활동 인구의 부담 증가로 이어져서 세대 간 갈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경제활동 인구는 부양책임과 자신의 노후 대비 부담을 동시에 안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중국은 1인당 소득이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상태에서 인구 고령화를 맞이해 그 속도와 규모에 의한 파급효과가 더욱 커서 중국 정부가 노인의 부양문제를 대처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또한 노인 인구 급증과 가정구조의 변화에 따라 더 이상 자녀들에게 부모 돌봄의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은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중국에서 노인복지 시설이 부족하고 노인복지 시설의 공급과 수요 간 문제점이 존재하며 의료·요양 자원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에서 사전 예방 차원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 수립은 합리적인 선택이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요양서비스 산업이 체계적인 효과를 이루면서 자원 절약, 원가 절감, 사회복지지를 증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ferences

- China Daily (中文网) (2017, July 26). *Chinese life expectancy up to more than 76 years*. http://www.chinadaily.com.cn/china/2017-07/26/content_30256796.htm.
- China.org.cn (中国网). (2015, December 15). *北京明确 “9064”养老服务目标* http://health.china.org.cn/health/2015-12/15/content_40111111.htm.

- china.com.cn/2015-12/15/content_8453133.htm.
- Kim, Byung-Cheol (2014). *The great revival of the Chinese people*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 Seoul: China House.
- Kim, Byung-Cheol (2017). The Chinese government strategy on deepening population aging.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Gerontology*, 26(1), 61-75.
- Lee, H., & Kim, J. (2019). Study on long-term care insurance on consumption and expenses among beneficiary household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0(9), 343-349.
- Li, Zhiming (李志明). (2015). Solving the dilemma of pension system reform (破解养老保险制度改革困局). *Study Times* (学习时报), 5, 12 (第5版1-2页).
- Liu, Tao (刘涛). (2013). Rational use of drugs for the elderly (老年人的合理用药问题). *China Health Vision* (健康大视野), 16, 689 (第16期689页).
- Nie, J. B. (2016). Erosion of eldercare in China: A socio-ethical inquiry in aging, elderly suicide and the government's responsibilities in the context of the one-child policy. *Ageing International*, 41 (4), 350-365.
- Park, S., Yang, M., Ha, S., & Lee, J. (2014). Effective anti-aging strategies in an era of super-aging. *Journal of Menopausal Medicine*, 20(3), 85-89.
- People's Daily (人民网). (2019, Jan. 28). *Healthy aging necessary for China to cope with aging society: Report.* (<http://en.people.cn/n3/2019/0128/c90000-9541737.html>).
- Shang, Ke (尚珂). (2019, September). *China's social service policy for the elderly and Beijing's practice* (中国社会养老服务政策与北京实践). Paper presented at the 15th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Conference (社会保障国际论坛), Wonju, Korea.
- Sina (新浪财经). (2018, January 29). 杨燕绥: 中国进入深度老龄化打造个人养老金合格计划. <http://finance.sina.com.cn/money/insurance/bxdt/2018-01-29/doc-ifyqzcxh7697949.shtml>.
- Sohu.com (搜狐网) (2018, July 13). 全球总人口超75亿, 老年人9.62亿, 中国老年人2.4亿, 全球占比25%. http://www.sohu.com/a/240959291_100110525.
- Tian, Xueyuan (田雪原). (2013). *Aging population and middle income trap* (人口老龄化与“中等收入陷阱”). Peking: Social Sciences Academic Press (社会科学文献出版社).
- Xiang, Tian (向田). (2016). The empty nest family rate of the elderly in large and medium-sized cities in China has reached 70% (我国大中城市老年空巢家庭率已达70%). *Friends of the Old Comrades* (老同志之友), No. 2. p. 14.
- Xinhuanet (新华网). (2019 March 5). (两会授权发布) 李克强说, 促进形成强大国内市场, 持续释放内需潜力. http://www.xinhuanet.com/politics/2019-03/05/c_1124194261.htm.
- Xinjinbao (新京报). (2018, December 10). 黑

- 龙江亏空超200亿! 13个地区养老金支付能力不足1年. <http://baijiahao.baidu.com/s?id=1586332200383277494&wfr=spider&for=pc>.
- Yu, Meng (유명). (2017). Current state and future direction of long-term care insurance in China: Focusing on the 2017 long-term care insurance in Shanghai (중국 장기요양보험의 현황 및 과제: 2017년 상하이시 장기요양보험을 사례로). *Global Social Security Review* (국제사회보장리뷰), 3, 123-131.
- Zheng, Bingwen (郑秉文). (2016). *China Pension Development Report 2016: Comprehensively deepening the reform of the 'second pillar' pension system* [中国养老金发展报告(2016): '第二支柱'年金制度全面深化改革]. Peking: Economic Management Press (经济管理出版社).
- Zheng, Gongcheng (郑功成). (2008). *China's social security for 30 years* (中国社会保障30年). Peking: People's Publishing House (人民出版社).
- 원고접수일: 2019. 09. 27.
수정원고접수일: 2019. 10. 31.
원고게재승인일: 2019. 11. 21.